

2017 04

학교흡연예방사업 뉴스레터 vol. 20



☞ 이달의 정책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이제 곧 담배의 진실이 담뱃갑에 표기된다. 이제껏 화려하게 포장되었던 담배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의 표기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질환,...



☞ 이달의 연구

한국 흡연청소년의 금연시도 관련요인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인의 흡연 시작시기가 주로 청소년이기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정기적인 흡연자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세포...



☞ 학교 소식

경기도교육청,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 개최 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삶 보장을 위한 실천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 현장 인터뷰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김영지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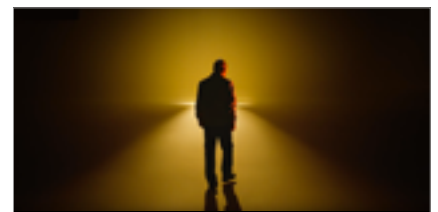
저는 광주에 있는 전남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 학교 알리미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외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서 제출 기한을 안내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모든 기본형 및 심화형 학교에서는 계획 입력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예방 교육자료

2016년 3차 금연광고 (슈퍼영웅 편) 외

2016년 국가 금연 캠페인 중 하나인 한국 중연형 캠페인으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TV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2017년 4월 | 이달의 정책



1. 서론

이제 곧 담배의 진실이 담뱃갑에 표기된다. 이제껏 화려하게 포장되었던 담배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의 표기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질환, 폐암, 후두암 등의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흡연자 및 비흡연자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0여 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이유이다.

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

담뱃갑 포장은 담배제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담배업계가 제품의 매혹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최후의 광고 수단이다. 문제는 업계가 고심하여 디자인한 화려한 담뱃갑이 대중의 흡연 폐해에 대한 인식을 잠식하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80개국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적 틀을 제공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사항들을 제11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 건강경고(Health warning)를 담뱃갑에 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FCTC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제11조는 협약 비준 후 3년 이내 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인 만큼 2016년 기준 세계 평균 이행률(76%)이 협약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경고를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는 국가는 89%에 이르고, 특히 당사국의 절반 이상(56%)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은 협약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발간된 캐나다 암 협회(Canadian Cancer Societ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캐나다를 기점으로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7년에 시행 예정인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현재 총 105개 국가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확정했음을 알 수 있다.

WHO FCTC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핵심 조치 및 세계 이행 현황		
세계 평균 이행률	핵심 조치	세계 이행률
76%	- 담배제품 포장에 광고 및 판촉을 하지 않도록 규제	74%
	- 오도문구 금지	80%
	- 건강경고 표기	89%
	- 건강경고의 국가 승인 의무화	84%
	- 건강경고의 순환사용	70%
	- 크고, 분명하고, 가시적인 건강경고의 사용	87%
	- 건강경고가 주요 면적의 30% 이상 차지	77%
	- 건강경고가 주요 면적의 50% 이상 차지	48%
	- 경고그림 표기	56%
	- 경고를 해당국의 주요언어로 표기	87%
*세계 이행률 : 해당 핵심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당사국들의 비율		
※출처 : WHO, (2016).		



3. 효과적인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위한 구성 요소

우리나라 역시 2015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이 시행된다. 경고문구에만 의존하여 경각심을 전달하던 담뱃갑에 담배가 야기하는 실제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진을 표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고그림만 표기한다고 해서 정책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담배업계가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담뱃갑 포장을 디자인하는 만큼 담뱃갑 건강경고는 각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위한 면적, 위치 등 요소

앞서 보았듯이 FCTC에서는 건강경고를 담뱃갑 주요 면적(앞·뒷면)의 50% 이상의 크기로 해야 하며, 최소한 30% 이상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강경고의 크기가 가독성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면적이 75%일 때가 50%보다, 90%일 때가 75%보다 효과적이며 경고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흡연의 유해성 정도를 더욱 크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건강경고 면적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네팔과 바누아투가 90%로 가장 면적이 넓으며, 인도와 태국이 85%, 호주가 82.5%(앞면 75%, 뒷면 9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 경고문구만으로 이루어진 30% 크기의 건강경고에 경고그림이 도입되면서 총 면적이 50%(경고문구 20%, 경고그림 30%)로 확대되어 57위에 위치했다. 이는 2014년 기준 순위와 비교했을 때 53순위 상승한 것으로써 우리나라 건강경고가 한층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담뱃갑 건강경고(Health warning) 면적 순위		
2016년 순위*	앞·뒷면 면적 평균	국가(앞면, 뒷면)
공동 1위	90%	네덜(90%, 90%)
		바누아투(90%, 90%)
공동 3위	85%	인도(85%, 85%)
		태국(85%, 85%)
5위	82.5%	호주(75%, 90%)
⋮		
57위	50%	대한민국(5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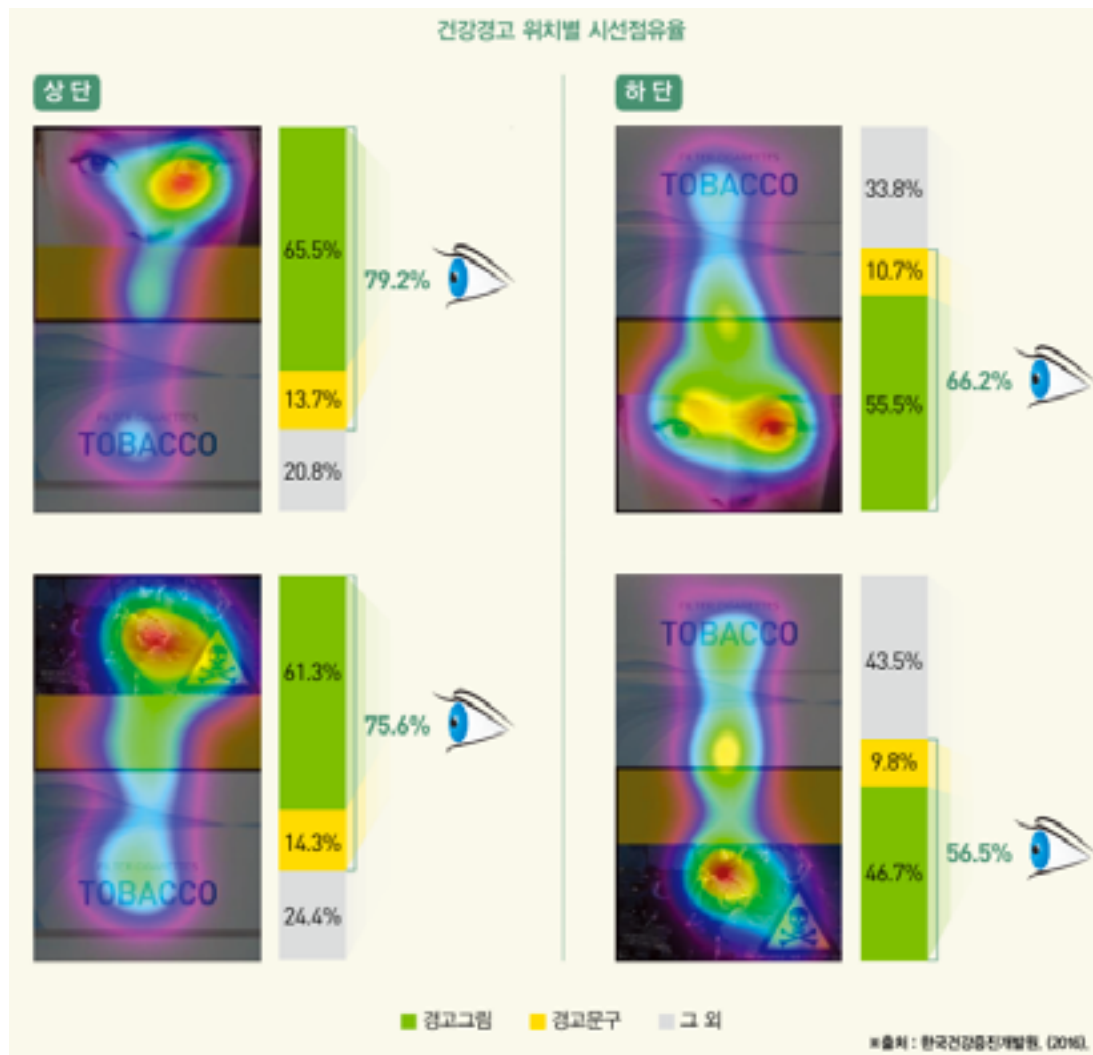
2014년 대비
53위 상승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포함한 건강경고 앞·뒷면 면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 (2016).

건강경고의 위치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의 어느 위치에 표기하는지가 주목도 및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강경고는 담뱃갑의 측면에 위치하는 것보다 정면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히 더 인식하기 쉬울 뿐 아니라 화상률도 높는데, 정면 중에서도 건강경고가 어느 위치에 표기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FCTC 제11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경고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의 하단보다는 상단에 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1994년 건강경고를 담뱃갑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 후 경고문구의 연상률이 20%에서 95%로 증가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담뱃갑의 상단 부분은 담배 마케팅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경고그림이 위치하게 될 경우 담배 브랜드 이미지 각인이나 광고 효과가 현저히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정책 도입을 위해 하위 법령을 입안할 때 이 지점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들을 비롯하여 상단에 배치해야 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경고그림 상단 배치가 의무화되었다. 대표적인 근거로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수행한 시선 추적(Eye-tracking)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담뱃갑 상단에 위치했을 때(75.6-79.2%) 하단에 위치했을 때(56.5-66.2%)보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시선이 더 많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색 대비 표기로 규정된 경고문구 역시 주목도를 고려한 것이다. 색상은 대중이 건강경고의 내용을 보거나 읽을 확률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경고문구는 일반적으로 밝은색 바탕에 어두운 색으로 표기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이는 마케팅 심리학에서 “보색 원칙(Contrast principle)”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독성을 위한 인쇄 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검정색으로 된 일정 두께(2mm)의 테두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이 규정 또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데 있어서 테두리가 강조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

□ 효과적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제와 내용

그렇다면,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할까. 먼저 공포나 혐오도가 높을수록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을 유도하거나 흡연을 줄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공포소구가 즉각적인 정서반응을 유발하고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며 담배를 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흡연 여부, 연령, 성별에 따라 관심 주제가 다르므로 각 그룹에 대한 차이가 고려된 주제가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중장년층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및 생명과 직결된 주제에 선정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중장년층은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및 생명과 직결된 주제에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은 운동능력 저하 등 즉각적인 피해와 관련된 주제나 피부노화와 같은 미용에 관련된 주제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국내·외 경고그림 사례와 성인 및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설득력과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총 10종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였다.

우리나라 담뭍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꺾린 총 10종)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후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심장질환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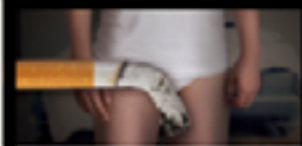
뇌졸중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발기부전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피부노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 경고그림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고려사항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과학적·학술적 근거에 입각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개발하였으며, 이제 그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시행단계에서 정책의 효과가 저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그림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법적 소송으로 인한 시행 저지 및 지연 가능성

담배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미국은 업계의 법적 제소로 인해 경고그림 정책 시행이 저지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9년에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에 의해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지만, 대형 담배회사들이 미식품의약국(FDA)이 2011년에 규정한 9개의 경고그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업계는 “담배업계가 정부의 금연 옹호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권을 규정하는 헌법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항소법원이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FDA는 적법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 경고그림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고그림을 최초로 도입한 캐나다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업계의 소송에 대응해야 했으며, 유럽연합(EU)이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업계는 동일한 방법으로 정책을 저해하려했다. 또한, 최근 케냐의 경우 2014년에 담뱃갑 경고그림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사(社)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헌으로 판결된 올해 9월에서야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담배업계는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협정 위배 등을 이유로 경고그림 정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물량 조정으로 인한 정책 효과 저해 가능성

새로운 담뱃갑 포장 및 라벨 조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가지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을, 또 한 가지는 도매상 및 소매상에 대한 정책 시행 시점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뿐 아니라 도매상 및 소매상 단계에서 최종 시행 시점을 추가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그래야 제조업자가 기존 포장으로 된 담뱃갑의 재고를 비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호주는 경고그림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 소매상 단계의 시행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2000년 12월 20일 이후에 제조되는 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할 것을 규정했으며, 호주는 2006년 경고그림을 처음 시행할 때 당해 3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제조되는 담뱃갑만을 경고그림 표기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당시에 전문가들은 담배업계가 재고를 비축할 것을 예상하며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기준일 4개월 후인 당해 7월에도 시드니 내 판매점의 70%

가량에서 경고문구만 표기된 종전의 담뱃갑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조사된 바 있다. 모리셔스 역시 2009년 경고그림 정책을 시행할 때 적용 대상에서 당해 6월 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제품만을 예외로 했으며, 소매상 단계의 시행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소매점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담뱃갑을 볼 수 있었던 시기는 4개월 후인 당해 10월 17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후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들은 소매상 단계에서 새로운 담뱃갑이 판매되어야 하는 시점을 정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2012년에 새로운 16종의 건강경고를 도입할 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새로운 건강경고를 표기하지 않은 담배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2012년 3월 21일)뿐 아니라, 소매상이 종전의 담배제품을 소매점에 진열할 수 있는 기한(2012년 6월 18일)도 정했다. 호주 역시 2012년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고 면적을 확대할 때 2012년 12월 이후로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은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다 상세하게 법적 규제 시점을 명시한 사례이다. 2008년 9월에 경고그림 관련 법이 통과된 후 담배업계는 기존 담뱃갑 포장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및 소매점에 축적된 재고를 소진하고, 담뱃갑 포장을 다시 디자인하고 새로운 인쇄판을 만들며 소비자들과 변화에 대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주장하며 정책 시행을 적극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소 재고보관단위(Stock Keeping unit)만큼의 경고그림 표기 담배를 제조하는 시점,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제조되어야 하는 시점, 소매점 판매 시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표기되어야 하는 시점 등 모든 유통단계를 고려한 법적 규제시점을 규정하여 업계의 반발을 원천봉쇄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세부 규정	
시점	법적 규제 사항
2008년 9월 담뱃갑 경고그림 법 통과	
2009년 1월 1일	각 브랜드 제품별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최소 2개 재고보관단위(Stock keeping unit)만큼 갖추는 것
2009년 3월	새롭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담배는 경고그림을 표기할 것
2009년 5월 31일	모든 기존 재고를 소진할 것
2009년 6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소매상은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만 매입할 것을 권고

※출처 :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 Alliance, (2010).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올해 12월 23일부터 제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뱃갑에 새로운 건강경고가 표기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해당 시점 이전에 제조된 기존 담뱃갑은 최대 내년 6월 이후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배가 유통되는 데 걸리는 기간(약 1개월)보다 다소 긴 기한이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담뱃갑이 소매점에 진열되기까지의 기간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다. 즉, 업계가 12월 23일 이전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담배제품을 제조·반출하여 재고를 비축해둔다면 소매점에서 종전의 담뱃갑을 볼 수 있는 시점은 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이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뱃갑을 판매점에서 직접 접했을 때부터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물량 조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조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가리는 행위를 통한 정책 무력화 가능성

경고그림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담배를 제조할 때 납세필증이나 포장지, 기타 방법으로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판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려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담배제품을 진열·제조할 때 담뱃갑이나 담배 포장지에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납세필 인지, 가격표, 포장지, 상자 또는 기타 물건(item)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체가 다 보여야 함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공백인 상태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려 담배 판매 실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도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경고문구가 가려진 상태로 담배가 진열·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 업계가 펼칠 수 있는 ‘꼼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5월에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경고그림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 담배의 진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건강경고 가리는 행위 규제 사례	
국가	주요 내용
EU	담배 제품이 진열·제조될 때, 담뱃갑이나 담배 포장지에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납세필 인지, 가격표, 포장지, 상자 또는 기타 물건(item)에 의해 부분적, 전체적으로 가려지거나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전체가 다 보여야함
말레이시아	담배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때,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시각적으로 가려지거나 다른 어떤 물체나 수단에 의해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됨
멕시코	담뱃갑을 진열하거나 광고할 때, 스티커나 가림, 박스, 덮개 등 인공적인 것을 사용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거나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 금지
자메이카	제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치나 물건을 사용하여 담뱃갑에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가리거나 훼손하거나 바꾸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 금지.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
콜롬비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려지거나 제거 혹은 감추어져서는 안 됨

※출처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사(社)의 내부문건

"담뱃갑의 광고 면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은 반드시 제지되어야 하며, 우리의 담뱃갑과 상표(trademarks)를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담배업계는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담배업계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업계는 건강경고, 특히 경고그림을 업계가 직면한 핵심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뱃갑 디자인을 사수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적으로 경고그림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명 ‘비명 실험(Scream test)’이라는 말이 있다. 담배규제 정책이 담배 소비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담배업계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는 뜻이다. 즉, 담배업계의 반발은 경고그림 정책이 담배의 진실을 알리는 데에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 업계의 저항에 대비하여 담뱃갑 경고그림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금연이슈리포트_vol.39_October_2016



링크

http://khealth.or.kr/PublishBoard.do?bid=92&mid=442&cmd=_view&dept=&bns=92&idx=9586

한국 흡연청소년의 금연 시도 관련요인

2017년 4월 | 이달의 연구



본 원고는 다음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한국 흡연청소년의 금연 시도 관련요인》, 박지연,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9권 제3호, 2016년 12월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인의 흡연 시작시기가 주로 청소년이기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정기적인 흡연자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흡연은 세포 및 조직에 치명적인 피해와 손상을 일으키며, 범죄유발, 성문제,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성을 높이고 신체적으로도 여러 위험을 높이므로 학교에서도 심각한 보건문제로 대두된다. 평생의 건강을 위하여 청소년기에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청소년의 성인기 이후까지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흡연행위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금연시도를 높이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연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흡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최근 1년 이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금연시도를 한 흡연 청소년 중 10% 정도만이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낮은 금연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금연시도는 금연의 시작점으로 성공적인 금연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금연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금연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금연시도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흡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시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앞으로 이들을 위한 학교보건에서의 효과적인 금연정책수립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첫째,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 심리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금연시도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 연구 대상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의 모집단은 2014년 4월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며, 표본추출을 위하여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모집단 층화 단계에서는 44개 지역군과 학교급(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132개 층으로 나누었다.

둘째,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표본크기를 중학교400개교, 고등학교400개교로 한 후, 17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5개씩 우선 배분하였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시·도, 도시규모(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지역군, 중학교는 남/여/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남/여/남녀공학, 일반계고/특성화계고에 따라 표본학교수를 배분하였다.

셋째,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이 사용되었으며,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으로 하였다. 1차 추출은 층별로 모집단의 학교 명부를 정렬한 후 추출간격을 산정하여 계통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다. 2차 추출은 선정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총 800교(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의 재학생 70,3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797개교, 68,04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96.7% 참여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1달 이내 1일 이상 흡연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를 흡연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대상자 68,043명 중 흡연 청소년 5,123명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 연구 도구

○ 금연 시도

- 금연시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를 금연시도가 없는 것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고 대답한 경우를 금연시도가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일반적 특성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종류, 거주 지역, 학교유형 및 경제적 상태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상’, ‘중상’을 상으로, ‘중’을 중으로, ‘하’, ‘중하’를 하로 재분류하였다.

○ 심리적 특성

-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은 주관적 건강인지, 행복감 및 평상시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못함’으로 분류하였고, 행복감은 ‘평상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행복함’, ‘보통’, ‘불행함’으로 분류하였다. 평상시 스트레스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스트레스 많음’, ‘보통’, ‘스트레스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 흡연 관련 특성

- 대상자의 흡연 관련 특성은 일일 흡연량,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금연교육 경험 및 금연홍보매체 노출, 가족 흡연, 음주경험, 친한 친구 흡연으로 구성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복합표본설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복합표본 계획 파일은 층화변수(strata), 군집변수(cluster), 가중치(W), 유한모집단수정계수(FPC)를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복합표본분석(complex sampling method)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statistic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시도와 독립변수(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는 가중된 빈도, 가중되지 않은 빈도, 가중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시도에 따른 독립변수의 차이는 복합표본교차분석(Rao-Scott test)으로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시도에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는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았으며 (KSU-16-09-001),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 경험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 경험은 Table 1과 같다. 전체 흡연 청소년 5,123명 중 금연 시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1.7%, 금연 시도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8.3%였다.

Table 1. Attempt to Quit Smoking in Adolescent Smokers				(N=5,123)
Variable	Categories	Un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Attempt to quit smoking	Yes	3,675	186,044	71.7
	No	1,448	73,569	28.3
	Total	5,123	259,614	100.0

□ 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시도의 차이

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금연 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 학년, 학교종류, 거주 지역, 학교유형 및 경제적 상태에 따른 금연 시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Differences in Attempts to Quit Smo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empts to quit smoking				Rao-Scott χ^2 (p)
		Yes (n=3,675)		No (n=1,448)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Gender	Male	2,938 (149,095.9)	80.1	1,161 (59,306.2)	80.6	0.15 (.736)
	Female	737 (36,948.3)	19.9	287 (14,263.1)	19.4	
School grade	Middle 1st	80 (2,843.9)	1.5	42 (1,444.7)	2.0	9.63 (.130)
	Middle 2nd	259 (11,746.9)	6.3	104 (4,988.7)	6.8	
	Middle 3rd	460 (22,962.1)	12.3	175 (8,212.4)	11.2	
	High 1st	751 (38,765.9)	20.8	277 (14,136.0)	19.2	
	High 2nd	986 (51,139.3)	27.5	366 (18,915.8)	25.7	
	High 3rd	1,139 (58,586.1)	31.5	484 (25,871.6)	35.2	
School type	Middle school	799 (37,552.9)	20.2	321 (14,645.8)	19.9	0.05 (.830)
	High school	2,876 (148,491.4)	79.8	1,127 (58,923.4)	80.1	
Residential area	Big city	1,762 (93,123.6)	50.1	722 (37,334.1)	50.7	0.84 (.725)
	Small and medium city	1,733 (85,260.9)	45.8	659 (33,595.7)	45.7	
	Country	180 (7,659.8)	4.1	67 (2,639.4)	3.6	
Classroom type	Boys school	927 (49,988.3)	26.9	388 (20,732.3)	28.2	0.91 (.690)
	Girls school	213 (10,942.8)	5.9	81 (4,196.3)	5.7	
	Coeducation	2,535 (12,5113.2)	67.2	979 (48,640.6)	66.1	
Economic status	High	1,098 (57,140.4)	30.7	469 (24,362.2)	33.1	3.40 (.277)
	Middle	1,581 (79,130.0)	42.5	620 (30,919.9)	42.0	
	low	996 (49,773.8)	26.8	359 (18,287.2)	24.9	

□ 흡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금연시도의 차이

흡연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금연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인지, 행복감, 평상시 스트레스에 따른 금연시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Attempt to Quit Smoking according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5,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empt to quit smoking				Rao-Scott χ^2 (p)
		Yes (3,675)		No (1,448)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2,589 (131,767.6)	70.8	991 (50,229.9)	68.3	4.62 (.178)
	Middle	817 (41,196.1)	22.1	340 (17,061.9)	23.2	
	Low	269 (13,080.5)	7.0	117 (6,277.4)	8.5	
Happiness	High	1,991 (99,157.5)	53.3	763 (38,893.2)	52.9	1.23 (.629)
	Middle	1,210 (62,280.4)	33.5	480 (24,094.1)	32.8	
	Low	474 (24,606.4)	13.2	205 (10,582.0)	14.4	
Stress	High	1,600 (81,021.8)	43.5	624 (30,863.1)	42.0	1.88 (.454)
	Middle	1,428 (72,827.6)	39.1	559 (28,913.2)	39.3	
	Low	647 (32,194.8)	17.3	265 (13,792.9)	18.7	

□ 흡연 청소년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시도의 차이

흡연 청소년의 흡연 관련 특성에 따른 금연 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일일 흡연량($p<.001$), 가정 내 간접흡연($p=.037$), 학교금연교육 경험($p<.001$), 금연홍보매체 노출($p<.001$), 음주경험($p=.032$), 친한 친구 흡연($p<.001$)에 따라 금연시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가 일일 흡연량이 적은 경우와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받았거나 금연홍보매체에 노출되었다고 인지하는 경우, 음주경험이 있는 경우 및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금연시도가 높았다. 가족 흡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Differences in Attempts to Quit Smoking according to Smoking-related Characteristics (N=5,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Attempt to quit smoking				Rao-Scott χ^2 (p)
		Yes (3,675)		No (1,448)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n)	weighted%	
Smoking amount (cigarettes/day)	< 20	3,476 (175,717.6)	94.4	1,309 (65,912.2)	89.6	38.07 ($< .001$)
	≥ 20	199 (10,326.6)	5.6	139 (7,657.0)	10.4	
Experience of secondhand smoking in family	No	2,037 (105,893.0)	56.9	773 (39,240.0)	53.3	5.41 (.037)
	Yes	1,638 (80,151.2)	43.1	675 (34,329.3)	46.7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education in school	Yes	2,383 (118,214.9)	63.5	650 (32,362.8)	44.0	163.26 ($< .001$)
	No	1,292 (67,829.4)	36.5	798 (41,206.5)	56.0	
Anti-smoking publicity	Yes	2,681 (136,003.4)	73.1	918 (46,638.2)	63.4	47.02 ($< .001$)
	No	994 (50,040.9)	26.9	530 (26,931.0)	36.6	
Family smoking	Yes	2,308 (113,986.6)	64.5	880 (44,919.8)	64.4	0.00 (.962)
	No	1,195 (62,837.1)	35.5	494 (24,854.5)	35.6	
Experience of drinking	Yes	3,336 (169,874.9)	91.3	1,287 (65,677.9)	89.3	5.12 (.032)
	No	339 (16,169.3)	8.7	161 (7,891.3)	10.7	
Close friend's smoking	Yes	3,506 (177,787.4)	95.4	1,337 (67,931.6)	92.3	6,459.5 ($< .001$)
	No	169 (8,256.8)	4.4	111 (5,637.7)	7.7	

□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 관련요인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한 복합표본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흡연 청소년은 일일 흡연량이 적고,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으며, 학교금연교육 경험과 금연홍보매체 노출이 있고,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금연시도가 높았다.

Table 5. Factors related to Smoking Cessation (N=5,1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95% CI	p
Smoking amount (cigarettes/day)	< 20	1.78	1.42~2.23	$< .001$
	≥ 20	1.00		
Secondhand smoking in family	Yes	1.16	1.02~1.32	.021
	No	1.00		
Smoking cessation education in school	Yes	2.05	1.79~2.35	$< .001$
	No	1.00		
Seeing anti-smoking publicity	Yes	1.35	1.17~1.55	$< .001$
	No	1.00		
Experience of drinking	Yes	1.19	0.97~1.46	.092
	No	1.00		
Close friend's smoking	Yes	1.64	1.24~2.17	$< .001$
	No	1.00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하여 흡연 청소년의 금연을 돕기 위한 학교의 보건정책과 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기에 향후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는 71.7%였다. 2015년의 금연시도인 71.7%가 낮은 비율이라 할 수는 없으나 해마다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권유에 대한 학교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광고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더해지고 있으므로 매년 시행되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금연시도율이 증가하는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흡연 청소년의 금연시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은 일일 흡연량,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금연교육 경험, 금연홍보매체 노출 및 친한 친구 흡연이었다. 일일 흡연량이 적은 경우와 가정 내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받았거나 금연홍보매체에 노출되었다고 인지하는 경우 및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 금연시도가 높았다. 일일 흡연량이 한 갑 미만인 청소년들은 금연시도가 1.78배 높았다. 흡연량이 적은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흡연행동을 더 합리화하며 본인의 흡연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도 있으므로 흡연량에 따라 흡연청소년에게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중재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흡연 청소년 중 가정 내 간접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금연시도가 1.16배 높았다. 이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의 청소년에게 가정 내 흡연환경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금연교육 시 부모 혹은 가정 내 흡연자에 대한 광고 혹은 교육 등이 동반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받은 흡연 청소년들은 금연시도가 2.05배 높았다. 금연 교육은 금연에 장기적인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고, 금연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금연 지속에 대한 영향요인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금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금연 성공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금연홍보매체에 노출된 흡연 청소년들은 금연시도가 1.35배 높았다. 현재의 금연 광고는 대부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혹은 홍보성 캠페인이 제작된다면 전달력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친한 친구 중 흡연자가 있는 청소년들의 금연시도가 1.64배 높았다. 이는 금연 성공에 있어 친구의 권유가 높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상자별 또래집단의 역동에 따른 차이로 생각되며 흡연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금연시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음주경험은 금연 시도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와 금연의 관련성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금연과 음주는 추후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흡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학교종류, 거주 지역, 학교유형, 경제적 상태가 금연 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와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써, 고위험흡연자를 감소시켜 다음세대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과 금연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답변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 과거에 흡연을 하였던 청소년들은 재흡연의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는 현재 흡연자로서 이전에 금연 결심을 한 후 금연을 했던 학생의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연구가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는 청소년 건강행태 대표성이 높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결론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 관련요인은 일일 흡연량, 가정 내 간접흡연, 학교금연교육 경험, 금연홍보매체 노출 및 친한 친구 흡연이었다. 흡연 청소년의 흡연 관련 특성 중 관련이 없는 것은 가족흡연과 음주경험, 일반적 특성, 심리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흡연 청소년의 금연 시도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중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금연정책 수립 시 대상자에 따라 목표 집단을 세분화하여 중재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지역사회 자원 등과 연계하여 학교보건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 개최 외

2017년 4월 | 학교 소식



1월 1주차 ~ 2월 4주차

□ 이주의 보도

○ 경기도교육청,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삶 보장을 위한 실천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학생들의 금연과 흡연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참여 건강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기관과 학부모회의 사업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최정분 장학관, 경기도교육연구원 임선일 박사, 이정연 박사, 중앙대학교 김영미 교수, 한림대학교 백유진 교수, 서울시교육청 홍민순 교육연구사 등 교육청 관계자 및 흡연예방건설턴트, 보건교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 최정분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흡연에 물들지 않도록 10년 전 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왔다”며 “학생들이 꿈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교육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산중학교,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대회 가져

충남 아산중학교 24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7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폭력 및 흡연을 예방해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 행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문 낭독, 학교규정 준수 결의문 낭독,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금연 교육, 학교 생활지도 안내 순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심관보 교장은 “우리학교는 언제나 생활지도의 중점을 학교폭력 예방과 흡연 예방 활동에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 교직원이 합심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 학교: 금연 결의대회 등 실시
- 보건소: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흡연행위 특별 단속, 건강 체험 학습터 운영,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 흡연단속, 금연클리닉 등 실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금연랩송, 흡연예방 강사 지원 사업 평가,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

2017.1.12. 수원일보 (교육청)

경기교육청, 내달 15일까지 '금연랩송' 이벤트 진행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리 모두 함께하는 금연랩송' 이벤트를 진행한다. '금연랩송' 이벤트는 청소년에게 인기있는 음악장르인 '랩'을 이용해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흡연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획했다.



2017.1.23. 프라이م 경제 (교육지원청)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흡연예방 강사 지원사업 평가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지난 20일 1년 동안 운영해온 학교흡연예방교육 강사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최근 1년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조사에서 최근 3년간 결과는 60%대로 조사됐다.



2017.1.26. 충남일보 (보건소)

서천보건소,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2015년)에 따르면 서천군 성인 흡연율이 19.1%로 전국(23.3%) 및 충남(22.4%) 대비 낮은 편이지만 여전히 중장년의 건강문제 중 흡연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흡연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홍보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보건소는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상담 매뉴얼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간호사와 영양상담사, 운동 처방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조해 등록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상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흡연자들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서천군 금연상담실(041-950-6747)을 찾으면 전문 금연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7.1.30. 네이버뉴스 (보건소)

전주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지정

전북 전주시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30m이내가 다음 달 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아동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지역 어린이집 678곳과 유치원 125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미래 전주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2.1. news1 (보건소)

“금연하세요”…수원 권선구보건소 ‘금연구역 흡연’ 단속

경기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선구보건소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7092곳을 점검했으며 금연클리닉을 통해 2500명의 흡연자를 등록·관리, 69%의 금연성공률을 달성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21곳 학생 1만여 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롯데백화점, 수원여자대학교에서는 12번에 걸쳐 금연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2017.2.12. 아시아투데이 (보건소)

함평군보건소 “올해엔 금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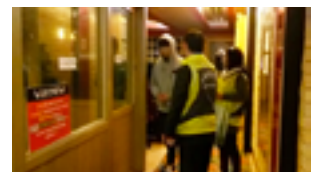
함평군보건소가 올해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는 등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이에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회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클리닉을 방문하면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 전문상담사가 함께 금연계획을 세우고 행동요법 등을 지도한다.



2017.2.15. 경북매일 (보건소)

상주시보건소, 청소년 흡연행위 특별단속

상주시보건소가 지난 13일 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 40곳을 대상으로 흡연 특별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초·중·고교 졸업식과 봄방학 기간 중 PC방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PC방 청소년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2.16. 노컷뉴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삶 보장을 위한 실천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 흡연예방 교육 성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1부 흡연예방 중심학교 컨설팅단결산회의, 2부 2016학생참여 건강체험 최종 결과 발표회, 3부 흡연 및 금연 정책 연구 및 평가 연구결과 세미나로 진행했다.



2017.2.20. 머니투데이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취약계층 청소년 금연교육'

청소년 흡연예방에 힘써 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간 집중 금연 교육을 실시, 담배 없는 세대 실현에 나선다. 현재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134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의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및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뭍불법판매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밖에서의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2.24. 아시아투데이 (학교)

아산중학교,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대회 가져

충남 아산중학교 24일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7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교폭력 및 흡연을 예방해 학생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이 행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결의문 낭독, 학교규정 준수 결의문 낭독,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금연 교육, 학교 생활지도 안내 순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2017.2.27. Breaknews (보건소)

'키 쑥쑥·몸 튼튼 건강체험 학습터' 운영

전북 익산시 보건소는 오는 3월 7일부터 11월까지 주 2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키 쑥쑥, 몸 튼튼

건강 체험 학습터'를 운영한다.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유도과 흡연유해성,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3월 1주차 ~ 3월 3주차

□ 이주의 보도

○ 산청 단성초,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경남 산청군 단성초등학교(교장 김호연)는 21일 도서관에서 산청군 보건의료원 박미선 금연상담사를 초빙해 3-4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실제적인 폐의 모습 및 니코틴에 중독된 실험 토끼들의 생생한 동영상 관람을 통해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간접흡연이 건강상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에 대하여 알아보으로써, 단순한 호기심을 통한 흡연 노출을 사전에 방지했다.

교육에 참석한 3학년 유세현 학생은 “엄마 아빠께 담배가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교문 앞에서 캠페인 해요”라고 말했다.

단성초 강문정 교사는 “이번교육을 시발점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흡연예방 및 금연운동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항시,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서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개학기와 봄을 맞아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개조 8명으로 구성되어 금연 담당 공무원 2명, 금연지도원 4명, 금연상담사 2명이 초, 중, 고등학교 52개소 정화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 게임제공업소, 담배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출입시간 등 준수사항에 대하여 계도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성인보다 큰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담배로부터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 학교: 금연 선포식, 흡연 예방 교육 등 실시
- 보건소: 금연 서비스, 흡연 및 음주 예방 어린이 인형극 공연, 금연 서포터즈, 건강 체험관, 흡연 예방 교육 등 실시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흡연예방교육 우수강사 구성 및 운영, 학교흡연예방 종합관리 계획 발표, 학생금연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 등 실시

2017.3.2. 경북도민일보 (보건소)

‘안동시민 금연 성공 도와드립니다’

안동시는 2017년 새해 맞아 달라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실 있는 금연 서비스를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연간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흡연자 금연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5월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금연 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를 구성해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연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금연교육과 대 시민 홍보를 펼친다.

2017.3.9. 매일일보 (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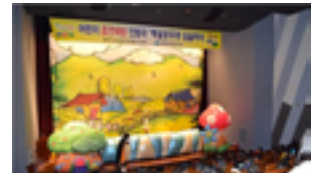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7 학교 흡연예방교육 우수강사 인력풀 구성·운영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오는 3월 10일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지원할 우수강사 인력 12명을 공모·모집하여 올 한해 동안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흡연예방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육의 방향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담배회사, 담배광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며, 흡연을 비규범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흡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2017.3.9. 아시아경제 (보건소)

함평군 보건소 흡연·음주 예방 어린이 인형극 공연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8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내용으로 한 어린이 인형극 ‘백설공주와 심술마녀’를 공연했다.



2017.3.9. 중도일보 (보건소)

하남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경기 하남시 보건소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청소년 100여명과 함께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2017년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의 시작을 알리며, 앞으로 1년 동안 거리캠페인, 금연환경 조성활동, 금연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시 보건소와 덕풍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여명의 또래 지도자를 양성했고, 올해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금연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3.13. 조선일보 (교육청)

음성 용천초등학교 금연선포식 개최

음성 용천초등학교 13일 용천관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건물 및 학교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으며, 어린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고 흡연의 유혹도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금연선서를 통해 흡연예방의식을 다졌다. 한편, 용천초등학교는 금연선포식을 시작으로 학생흡연 실태 파악 및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예방 문예행사, 흡연예방교육 활동, 교직원 금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7.3.13. 대전일보 (학교)

서울 청소년 흡연율 5.8%… 3년내 4%로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5%대인 청소년 흡연율을 2020년까지 4%로 낮추겠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학교 흡연 예방 종합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청소년 흡연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려 3년 안에

목표치에 도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금연 사업을 ▲학교 흡연 예방 사업 기반 구축 ▲청소년 흡연 진입 차단 ▲흡연 청소년 금연 지원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서 학교 흡연 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전문 강사 10여명을 학교에 파견해 흡연 예방 교육·상담을 돕게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청소년 흡연율은 전국 평균(6.3%)보다 조금 낮은 5.8%였다.

2017.3.13. 아시아뉴스통신 (보건소)

경주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체험교실 운영 마쳐

경북 경주시 보건소(소장 김여환)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봄방학 기간을 맞아해 지난달 25일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열린건강체험교실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건강체험관 체험에서는 금연과 절주를 홍보하고자 아이들이 직접 일산화탄소 측정이 되고 음주효과가 있는 고글을 쓰게 하여 음주 시 자동차 운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이 술과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7.3.13. Focus News (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미취학아동 건강체험관 운영

울산동구보건소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이달 13부터 5월 29일까지 ‘키썩썩! 몸튼튼!’ 건강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동구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팀이 동구지역의 원생 100명 이상인 2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편식예방 여양교육, 아토피 예방, 흡연예방, 구강 교육을 진행하며 키크기 체조, 감염병 예방 손씻기 체험, 소아용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7.3.14. 강원일보 (학교)

“금주·금연 약속합니다” 용암초 선포식

2017 화천 용암초교 학생 생활협약 및 금주·금연 선포식이 13일 교내 다사랑관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13일 능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총 117회에 걸쳐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은 흡연 시작 연령이 청소년기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각인시켜 금연동기를 부여하고자 진행된다. 지난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유치원, 어린이집 9곳, 초·중·고교 45개가 선정됐으며 약사회, 한국중독예방힐링센터 등에서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아동·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7.3.14. Focus News (학교)

하동 적량초, 학교폭력 및 흡연·음주예방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하동군 적량초등학교(교장 박용석)가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성공예감’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및 흡연,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예방 및 흡연, 음주예방을 위한 선포식에는 적량 치안센터장 및 경찰관 2명, 교감 외 교직원 8명, 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학교폭력 추방 및 흡연, 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2017.3.14. 아주경제 (보건소)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지속추진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지난 13일 능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총 117회에 걸쳐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은 흡연 시작 연령이 청소년기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각인시켜 금연동기를 부여하고자 진행된다. 지난달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유치원, 어린이집 9곳, 초·중·고교 45개가 선정됐으며 약사회, 한국중독예방힐링센터 등에서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아동·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017.3.17. 뉴시스 (교육청)

전북교육청, 학생금연지원센터 - 교육사업 수행기관 공모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흡연 학생의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학생금연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은 성인이 돼 흡연을 시작한 것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7.3.17. News1 (교육청)

전북교육청, 학생금연지원센터 - 금연교육 수행기관 공모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금연지원센터와 금연교육 운영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은 성인이 돼 흡연을 시작한 것보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7.3.20. 동양일보 (보건소)

제천시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제천시보건소는 오는 4~6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흥미 있는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담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시켜줌으로써 청소년기 흡연예방 및 가족 금연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17.3.20. 국제뉴스 (학교)

논산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선서식 실시

논산고등학교는 지난 15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캠페인 및 선서식,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선서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금연 선서식에서는 학생대표의 선창으로 금연 선서식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2017.3.22. 프레시안 (학교)

산청 단성초,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경남 산청군 단성초등학교(교장 김호연)는 21일 도서관에서 산청군보건의료원 박미선 금연상담사를

초빙해 3-4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실제적인 폐의 모습 및 니코틴에 중독된 실험 토끼들의 생생한 동영상 관람을 통해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간접흡연이 건강상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단순한 호기심을 통한 흡연 노출을 사전에 방지했다.



2017.3.22. 국제뉴스 (보건소)

포항시,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서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개학기와 봄을 맞아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 금연구역임을 홍보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개조 8명으로 구성되어 금연담당 공무원 2명, 금연지도원 4명, 금연상담사 2명이 초·중·고등학교 52개소 정화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공원, 게임제공업소, 담배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 김영지 선생님

2017년 4월 | 현장 인터뷰



소속 학교 소개 및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전남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부터 이미 사회경험이 있는 성숙한 학생들, 보호관찰중인 아이들, 인문계 고등학교나 다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 등 **삶을 살아가는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잠재력이 충만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과 2년간 동고동락하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방향을 가르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는 '단호박' 김영지 보건선생님의 좌충우돌 금연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특색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리 학교는 1,200명 중 50% 정도의 학생이 흡연학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16년도까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흡연 장소인 소각장에서는 수시로 담배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앞 유치원, 학교주변 아파트, 원룸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담배꽂초를 버리는 문제로 항상 학교에는 외부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동네 주민들은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을 ‘문제아’로 인식하고 우리 학교는 이 동네 NIMBY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워낙에 흡연 학생 수가 많다보니 학교에서도 흡연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점에 부딪쳤고, 학부모님들은 흡연을 못하게 할 경우 오히려 탈선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까봐 흡연하는 아이의 눈치를 보고 금연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지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다양한 흡연예방사업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금연 TFT를 구축한 것입니다. 금연 TFT란 담임교사(home Teacher), 학부모(Father and mother), 금연교육 담당교사(public health Teacher)가 한 팀이 되어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금연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법은 학부모가 들려주는 학생의 성장과정 및 성격,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특성, 금연지도교사가 바라보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금연지도 전에 흡연하는 학생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학생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우리학교 흡연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공부를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문제아’로 낙인찍힌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혹은 별거를 겪고,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라거나,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할 결정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무시만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것이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어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아주 작은 금연의 노력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과 칭찬을 해주었고, 흡연하고도 금연했다는 아이들의 거짓말도 믿어주었습니다. 거짓말을 믿어주니 거짓말을 일삼던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선생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면서 금연을 기대하기 보다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나를 지지해주고 가치 있게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언젠가 아이들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또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성과면에서 평가하자면 투자한 예산 대비 적자가 난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대한 수치보다 훨씬 금연 성공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금연 성공률이 낮다고 하여 우리학생들의 금연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조금씩 천천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운영보고서 작성 시, 학생들의 변화를 성과지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노력을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흡연예방교육 성과를 그래프와 수치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금연하려는 노력과 정서적으로 변화한 부분을 서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흡연예방사업 이외에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흡연하는 우리아이 이해하기’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흡연하는 자녀를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금연지도를 할 경우 자녀가 공격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교의 금연교육에만 의지하거나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흡연지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학부모님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부모님은 윤리적으로 옳음을 알려주고 실천하는 부모님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담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지자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닮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해하면 아이들의 생활은 붕괴되기 쉽습니다.

모진풍파에도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흡연지도에 있어 확고한 규칙을 정하되 변치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행동을 알고도 묵인하는 학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은, 흡연학생의 학부모님이 번아웃증후군(Burnout syndrom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인 결핍 상태에서 자녀의 문제행동까지 겹치게 되면 결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부모님부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연소녀 희망교실” 활동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학생의 구체적인 금연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금연소녀 희망교실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어린 시절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다른 학생들보다 사회경험을 일찍 시작하여 행동이 다소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문제행동으로 훈계처분을 받는 것이 익숙해서 자신을 혼내기만 하는 어른들에게 강한 적대감과 반항심을 표출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선생님의 “이쁜아 사랑해. 넌 할 수 있어”라는 한 마디가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학생들에게는 “금연해라”가 아니라 그 동안 **어른들에게 다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꾀꾀 달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선생님에게 귀한 사람이다. 내가 아끼는 나의 소중한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 아니라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던 흡연 여학생들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마다 줄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일삼던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와서 “오늘은 식후 흡연 안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붙여보이면서 정상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금연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학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흡연의 유무를 떠나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발견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요? 흡연학생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격한 말들을 하지는 않았는지, 흡연학생은 교칙을 어긴 ‘문제아’이므로 즉시 학생부로 의뢰하여 처벌하였는지, 흡연한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실을 찾아가서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흡연도 그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은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있는 학생들에게 훈계와 처벌을 하기에 앞서 한 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토닥여주며 “너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내 사람이며 너를 아끼는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는 금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기에 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주세요. 교칙을 위반한 처벌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존경심이 느껴지는 선생님



1위가 겉으로는 엄하시지만 속으로는 따뜻하게 챙겨주는 선생님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흡연하는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학생들을 무시하며 강압적인 생활지도를 하시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선생님은, 선생님부터 솔선수범하여 규칙을 지키며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지만, 속으로는 내 제자를 챙기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생활지도가 정말 어려운 오늘날의 학교 현장이지만, 여전히 우리학생들은 참되고 바른생활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희망입니다.**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외

2017년 4월 | 학교 알리미



□ 공지사항

○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내용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안내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모든 기본형 및 심화형 학교에서는 계획 입력 및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17.3.22.(수) ~ 4.7.(금)



방법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nosmk.khealth.or.kr)에 접속하여 해당 학교 ID로 로그인 한 후 '사업 유형, 학급 수, 학생 수, 예산액,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 여부' 체크

□ 사업동정

○ 2017년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직무연수 강사양성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일시 및 장소

- 2.14.(화) ~ 2.15.(수) 전남 여수
- 2.17.(금)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참석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장 및 교사 등 155명



주요내용

시·도교육청별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교사 직무 연수 관련 활동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2.14.(화) ~ 2.15.(수) 여수 교육



2.17.(금) 서울 교육

□ 사업길잡이

○ 담배가격규제(Pricing & Tobacco tax): 가격 인상 효과

1) 흡연자 흡연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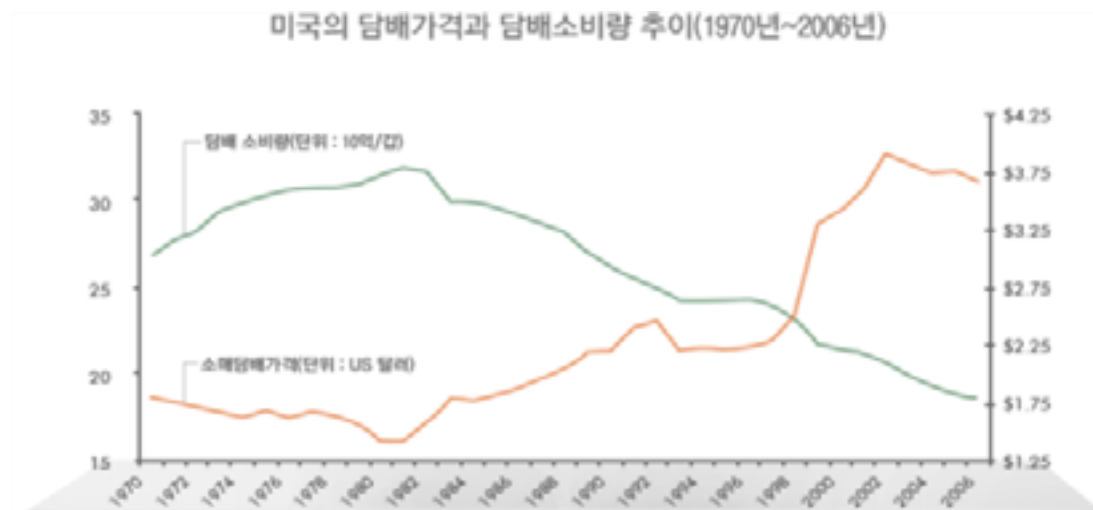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은 금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와 호주 등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담배관련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은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담배가격의

상승은 흡연자의 흡연 감소나 금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담배 가격이 평균 10% 인상되는 경우 선진국의 경우 약 2~6%, 중간 및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 2~8% 수준의 흡연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 영국은 1982년을 기점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본격적인 가격인상을 실시한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담배가격의 상승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자료: Tobacco Atlas third edition, American Cancer Society and World Lung Foundation, 2009



· 자료: Campaign for Tobacco Free Kids “Higher Tobacco Taxes Reduce Use”, <http://global.tobaccofreekids.org/en>

· 계산방식: (말보로 담배 1갑 가격 / 빅맥 1개가격) × 100

2)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부담금의 활용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조사 연구, 담배규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수행, 흡연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게 됨으로 흡연율 감소, 흡연예방, 흡연자 돌봄 등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증가를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회사의 이윤 증대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3) 가격 정책 추진 방향

가격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담배가격을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미한 수준의 담배가격 인상은 그 효과가 물가상승률에 묻히거나 가구수입 증대로 흡연율 감소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규제 및 흡연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배가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중에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World Bank Recommendation에 따르면 전체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3~4/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금연길라잡이: 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subview.jsp?id=nosmokeguide_030104060000

2016년 3차 금연광고 (슈퍼영웅 편) 외

2017년 4월 | 흡연예방 교육자료



□ 2016년 3차 금연광고(슈퍼영웅 편)

2016년 국가 금연 캠페인 중 하나인 한국 증언형 캠페인으로,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여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TV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대본

우리는 이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는 55세, 젊어서 슈퍼영웅이었던 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 하지만 결과는... “허의 삼분의 일을 잃었습니다. 32년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렸어요” 담배 하나로 모든 것을 잃었죠. 사람들은 금연광고가 무섭다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담배가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담배의 끝은 질병입니다.

📎 자료링크

금연두드림: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dataNo=101&dataGr=1&fileNo=402&postIdx=402&level1Idx=5&level2Idx=101&dataLv=1>

☐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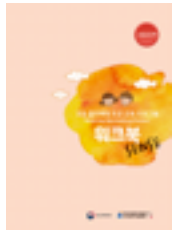
학교급별(초·중·고)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흡연예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학교급별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별 3가지(인지, 정서, 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주제별로 학습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학습 목표와 내용, 활동 등을 제시하였고, 관련 교과목을 제시하여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목 교사 또한 수업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급별 책자 구성

- 초등학교: 워크북 3종, 지도서 1종
- 중학교: 워크북 1종, 지도서 1종
- 고등학교: 워크북 1종, 지도서 1종



초등학생용
1단계 워크북



초등학생용
2단계 워크북



초등학생용
3단계 워크북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중학생용 워크북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생용
워크북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자료링크

초등학교: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20&spage=1&sRow=10&dataNo=6&dataGr=2&datalv=0&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6&level2Idx=18&postIdx=423>

중학교: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21&spage=1&sRow=10&dataNo=6&dataGr=2&datalv=0&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6&level2Idx=18&postIdx=424>

고등학교: <http://nsk.khealth.or.kr/user/extra/ntcc/nosmokeFile/fileView/jsp/Page.do?siteMenuIdx=81&fileNo=422&spage=1&sRow=10&dataNo=6&dataGr=2&datalv=0&searchFile=&listRange=makeYM&listType=album&level1Idx=6&level2Idx=18&postIdx=425>